

겨레의 통일 속망을 물어주시려고 (8)

1990년대의 첫해에 새로운 통일 방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런대로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리라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미 1980년대말부터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1989년 7월 세계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평양에 모여 조국통일축전대회를 가지고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에 판문점에서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남측과의 합의를 거쳐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모여 범민족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은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과 서울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안건을 가지고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겨레의 통일 열기는 더욱 세차게 분출되었다.

은 삼천리를 통일의 합성으로 진감시킨 범민족대회가 있는지 며칠후인 주체79(1990)년 8월 18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측추진본부 및 해외추진본부 대표들과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 재유럽동포대표,

일본추진본부대표단, 재소동포대표단(당시), 재중동포대표단,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1990년대의 첫해에 열린 이번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이은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역사적인 회합이었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거둔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족적 단결의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가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의 투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날의 연설은 범민족대회 대표들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이 조선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강력한 가르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참된 애

국의 지침을 받아안은 범민족대회 대표들은 북과 남, 해외의 3자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

범민족대회에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내오기로 결의한 대표들은 이 결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그해 11월에 베를린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실무회담을 가지었다.

회담에서는 범민련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로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으며 범민련의 활동방향과 당면목표를 밝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의 확고한 견지,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창립, 외세의 간섭배격과 민족의 자주성확립,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강령초안과 범민련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조직구조, 중앙조직과 지역구구를 규정한 규약초안을 심의하고 채택, 확정하였다.

이로써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후 1999년까지 해마다 8월 15일을 계기로 온 민족의 관심과 기대속에 범민족대회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렇듯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990년대는 민족대통일전선이 마련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운동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킨 격동적인 년대로 빛나게 되었다.

허충혁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락칭 범민족통일대축전)》(1999년 8월)

1990년대 민족단합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어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통일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

오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인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부터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을 《평화의 쇼》, 《연극》으로 협공하고 《북은 주적》, 《선제타격》과 같은 말발을 서슴없이 쉼대며 동족대결홍수를 드러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동족대결경이기에 집권하기 바쁘게 《북비핵화》와 《한미동맹》강화, 《한미일공조》를 떠들며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정권패배는 최근에도 그 무슨 《북도발》에 대처한 《철저한 대비태세》와 《극강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떠벌이었다.

한편 미국은 《한》미합수특수작전련합훈련이니, 《신박나포 및 검색훈련》이니, 미사일경보훈련이라 한도미사일타격 및 추적훈련이니 하는 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윤석열패를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또한 핵확포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이러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언젠 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반통일세력과의 굴합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통일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홀려온 조국통일운동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에 역행하여 전쟁대결책동에 미쳐달래는 반통일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없으며 겨레가 행진할의 참화까지 입을수 있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속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조국통일도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용감하다.

참략적인 외세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자주,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을 막을수 없다.

은 겨레는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전영일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민족의 대, 애국의 대가 곳곳이 이어진다

아담한 새 교사에서

얼마전 총련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새 교사가 일떠였다.

나고야조선초급학교는 해방직후 발족하였던 국어강습소를 모체로 하여 발전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지난 기간 이 지역의 동포들은 민족교육을 지키고 살리는 길이자 곧 민족의 넋을 지키고 이어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학교사업에 성심성을 다하였다.

동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새 교사가 일떠선것을 축하하여 나고야조선초급학교에서 모임이 열렸다. 여기에는 총련일군들과 학교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들과 각종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동영상편집물과 사진전시회 등을 통하여 학교가 걸어온 77년의 력사와 민족교육을 위해 바친 전세대 동포들의 순결한 애국지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모임에서 교장은 동포들의 물질량원의 지원으로 일떠선 아담한 새 교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게 되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면

서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자》를 위하여, 새 교사에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합쳐나가자.》고 힘차게 호소하였다. 각계층 동포들도 조선학교의 전통과 명예

를 빛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진행된 유치반어린이들과 초급부학생들의 공연과 졸업생들의 특색있는 합창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족의 대, 애국의 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있음을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경양학부의 김수강, 외국어학부의 권재섭을 비롯한 여러 신입생들이 바로 부모들의 뒤를 이어 애국의 한길을 주저없이 걸어가려는 의지를 안고 조선대학교를 지망하였다.

모든 신입생들은 조선대학교의 학생이 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침으로써 부모들의 당부대로 참다운 민족인재로 자라날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애국의 바통이 이어지고있기에 총련조선대학교는 재일조선인운동의 팔간을 양성하는 원동장으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최고학당 조선대학교 입학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남조선에서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역도는 심화되는 정치경제적위기에 처 벗어나려고 외세의 옷자락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박정희역도가 1964년에 들어와 외세의 막후지시에 따라 《한일회담》을 굴욕적조건에서 타결지으려고 서두른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당시 군사파쇼당장은 《3월타결 4월초인 5월비준》각본에 따라 이 범죄적인 회담을 서둘러 결착지으려고 획책하였다.

외세의 부추김에 나라를 팔고 민족의 존엄을 더럽히는 박정희군사파쇼당장의 매국행위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게 세차게 지펴올렸다.

남조선의 《경향신문》(1964년 2월 4일)은 《우리 민족의 살길은 일본에 종살이구결을 하는 길이 아니라 남북통일의 대로를 따라 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굴종해나서는 군사파쇼독재 《정권》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사회적, 종교계, 문화단체 인사들 200여명도 3월 9일 《대일교육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은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3월 12일부터 제6차 《한일회담》의 막이 열리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500여명은 《한일회담》반대성토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우사년(1905년)에 《보호조약》을 강요했던 일본제국주의가 강진년(1964년)에 또 하나의 《보호조약》을 강요하려고 날뛰는데 대해서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자본의 시녀가 되어 굴욕의교를 감행하는 박정희당당의 매국적 죄상을 날같이 고발하였다.

서울에서 라오른 투쟁의 불길은 로윈의 불길처럼 타번져 대구, 부산, 광주 등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직면한 매국도당은 부두이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예정하였던 《외교부장급정치회담》도 보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한일

회담》의 《조기타결》책동은 파란되고말았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서울의 17개 대학과 지방의 2개 대학의 3만 2 800여명의 학생들은 1만여명의 시민들과 합쳐하여 대규모적인 반 《정부》투쟁으로 일어났다. 하여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정치체제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사태는 4.19인민봉기의 그날을 방불케 하였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42개 지역에서 53개의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2)

남조선에서 태권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박정희독재 《정권》은 그것을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였다.

1965년 1월중순, 매국적인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남조선, 일본간의 정치적 흥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 박정희 《정권》은 당시 특권참모총장을 앞세워 예비부장정원외 회담지시성명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홍희선생도 배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선생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태권도는 그 어떤 정치적목적의 통략물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그해 2월 범죄적인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하였고 6월 22일에 정식조인하였다.

군사파쇼당국은 조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년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남조선전역의 대학들에 무장군인들을 투입하였는가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시위행동을 가로막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박정희역도는 자기의 영구 집권을 위해 태권도측에서

협력해줄것을 《조선일보》 사장을 통해 집요하게 요청해왔다.

그러나 최홍희선생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그후에도 이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선생의 립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벼슬과 돈으로는 선생을 매수할수 없음을 간파하고 그를 태권도조직에서 축출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강박하여 선생의 인격을 비방중상하게 하였고 각종 선전책자를 통하여 국제적범위에서도 국제태권도련맹을 휩쓸었다.

하여 선생은 국제적의 압력에 굴복하여 태권도를 버리느냐 아니면 죽거나 평생 영어의 몸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언제인가 최홍희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알다싶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권도자체에 대한 협박은 물론 나 자신도 신변을 보장받기가 힘들었다. 결국 선생은 외국으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1970년대초에 캐나다로 망명하였다.

그가 캐나다로 망명지로 선택한것은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이는 중립국이기때문이기도 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최홍희선생을 돌려세우기 위해 그의 안해를 회유하고 자식들을 인질로 붙잡아놓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모든 정적고충을 이겨내고 농들의 협박을 물리쳤다.

그때의 심정을 담아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이나 내 가족보다도 태권도를 아끼고 중요시한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은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다. 매가 되면 가야 한다. 그러나 민족은 영원하다. 그 민족의 영원한 흐름과 같이 태권도도 영원할것이다. 문제는 이 태권도를 올바른 자세로 후세에 길이 전달하는 것이다.》

최홍희선생은 캐나다에서 태권도활동을 벌리는 한편 캐나다조국통일회, 배달민족회, 해외민주예비역장병회를 조직하고 교포신문 《배달민보》를 펴내고 남조선독재 《정권》을 폭로하고 통일운동을 벌려나갔다.

남조선군사파쇼 《정권》을 규탄하는 최홍희선생의 성명이 일본의 교포신문인 《민족시보》와 미국의 여러 교포신문들과 그리고 남조선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다.

남조선 《정부》는 최홍희선생의 애국적활동을 가로막

기 위해 《세계태권도련맹》이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내어 최홍희선생을 압박하였다. 이것은 태권도계에 대한 의도적인 분열행위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던 선생은 해외교포사회의 한성원으로서 민족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썼다.

하여 선생은 자신이 발행하고 있는 《배달민보》를 통해 세상형편도 탐문하고 전망하면서 자신의 운명과 태권도세상의 길을 찾아 모지름을 썼다.

그러나 남조선에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있는한 민족무도-태권도의 분열을 막을수 없었다.

민족무도-태권도를 만들어낸 최홍희총재에게 남조선 《정권》의 압박의 마수가 펼쳐와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겪고있다는 소식이 공화국에 알려지고 이 사실이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남조선에서 군단장을 하다가 군사파쇼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통일을 운동해 벌리고있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파지를 불분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었다.

하지만 선생은 용서받을수 없고 피땀이 그치지않는 오욕의 반성으로 하여 선뜻 공화국으로의 발걸음을 뻗을수 없었다.

그러나 평양으로 쫓리는데 마음만은 여체할수가 없었다.

본사기자



태권도강습을 진행하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